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교회소식

모임

- 한나전도회 월례회** - 21일(주) 3부 예배 후 603호
- 공동의회 소집**
 - 안건 : 16대 장로 선거
 - 일시 : 오늘 찬양예배 후
 - 장소 : 본당
- 이삭선교회 월례회(부부동반)** - 23일(화) 오전 11시 30분 남한산성 돌집 031-742-8960(교회 출발 10시)


알림

- 세례식 신청** - 금년도 세 번째 세례식인 6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6월 18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입교와 유아세례 신청: 6월 3일(토)
 - *입교와 유아세례 교육: 6월 11일(주일) 낮 12시 20분 602호
 - *입교와 유아세례 문답: 6월 11일(주일) 오후 1시 10분 609호
 -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 이번주 심방 일정** / 1-2, 4-5, 4-6, 8-3, 8-6다락방

장례

- 故 최은자 권사(6교구 정인주 집사의 모친, 김경애 권사의 시모)** / 5월18일(목) 별세, 5월20일(토) 발인
 - 故 정해후 집사(2교구 여현주 권사의 부군)** / 5월18일(목) 별세, 5월20일(토) 천국환송예배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9시-17시30분	403호	유아부	11시-12시10분	706호
유치부	11시-12시10분	702호	유년부	11시-12시10분	701호
초등부	11시-12시10분	601호	중등부	9시-10시	501호
고등부	9시-10시20분	101호	청년부	15시30분-17시	601호
신혼가정부	12시30분-14시	606호	사랑부	10시30분-11시30분	603호
영어성경부	10시10분-11시	705호	소망부	10시10분-11시	802호
신앙강좌부	12시15분-12시55분	101호	새가족부	10시10분-14시	602호
세례교육부	12시10분	609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전도사 박미라 최중국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는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핀,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	--	---

위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Tel.558-1106 / Fax.558-210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

“ 예수께서 청년에게 ”

■ 누가복음 7:11-17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청년들을 대하시실 때 청년이라는 이유로 무시하지 않으셨고 무조건 비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청년을 살리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청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청년 현실을 마주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은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던 예수님께서 한 장례 행렬과 마주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한 과부 어머니가 애지중지 키워온 젊은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주하신 현상은 그 시대의 청년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식민 지배를 당하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 군인의 행포와 무거운 로마의 조세정책은 청년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권력과 부를 나눠 먹기에 바빴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이 죽은 청년의 모습입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찾지 못해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책임 있게 살피는 사람은 없고 어머니와 이웃들은 절망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그 행렬을 멈추어 서게 하셨습니다. 그는 슬픔과 절망에 감염되어 감상적인 눈물을 흘리시거나 이 절망의 행렬이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청년의 진정한 친구이시며 멘토이시며 리더이십니다. 오직 예수만 능력 많으신 오늘과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청년 여러분, 절망과 슬픔의 행로를 멈추게 하신 예수님을 직시하십시오. 히 12:12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그 분께서 절망으로 가는 우리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2. 예수께서 청년에게

14절에 말씀에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가까이 가사(went up), 손을 대시니(touched), 이르시되(He said)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으로 다가오시고 간섭하시고 사도시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본문은 이 예수님의 신분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호칭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16절에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가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년에게 다가가시고 그의 삶에 손을 대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며 메시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손을 대십니다. 내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이 절망과 슬픔의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시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무덤이 종착점이라는 생각으로 절망과 슬픔의 비명을 지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가오시고 만지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3. 청년아 일어나라

14,15절에 예수님은 친히 능력으로 그를 살리셔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지난 수년간 코로나 19의 공격을 통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세대가 지금의 청년들입니다. 또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 불리는 MZ세대는 개인주의화 되고 가상공간에서 자아도취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마도 지금의 청년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하고 광범위하며 위험한 변화의 시기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교회의 주역으로 성장해야 하고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서야 합니다. 그들을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기성세대가 청년을 위해 할 일은 그들을 이해해 주고 지지해 주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보호하고 지킵시다. 눈물 똑똑 떨어지도록 감동 받게 합시다. 지구촌 어떤 교회보다 서울교회 청년들이 행복한 젊은이들이 되게 합시다. 그들이 일어설 것이고 뛰기 시작할 것이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할 것이고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청년을 일어서게 만드신 예수님처럼 우리 청년들을 일어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안인호 장로	III 오후 2시	현종필 목사	안인호 장로
II 오전 11시	장석남 목사	최형열 장로			
입례송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히 13:15-16	인 도 자
예배로 부름	히 13:15-16	인 도 자	* 신앙고백		다 함 께
기 원	인 도 자		* 경배와 찬양		찬 양 팀
* 찬 송	14(1, 4절)	다 함 께	기 도		말 은 이
* 신앙고백		다 함 께	환영과 축복		찬 양 팀
* 성서 교독	97(청년주일)	다 함 께	교회 소식		인 도 자
* 송 영	4	다 함 께	성경 봉독	눅 7:11-17	말 은 이
기 도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찬 송	575	다 함 께	설 교 ...“예수께서 청년에게”...		손달익 목사
성경 봉독	눅 7:11-17	인 도 자	결단의 기도		다 함 께
성도의 교제		다 함 께	봉 헌		다 함 께
봉헌		다 함 께	* 봉헌기도		설 교 자
* 봉헌송	634	다 함 께	* 파 송		찬 양 팀
* 봉헌기도		인 도 자	* 축 도		설 교 자
찬 양		찬 양 대	* 후 주		찬 양 팀
새가족 환영		다 함 께			
설 교 ...“예수께서 청년에게”...		손달익 목사			
* 찬 송	430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전지희	김진이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조현정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이주희	윤주일	3부 예배 신디시스트	이요한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 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 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눅 7:14-15)		
수요 I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금주의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조현정		성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찬 양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오후 4시30분	조원영 목사	박명철 집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24:3-4	인 도 자
찬 송	15	다 함 께
기 도		말 은 이
찬 송	85	다 함 께
성 경	고전 1:18-2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오직 십자가”	손달익 목사
* 찬 송	383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11시	장석남 목사	이미송1 권사
II 오후 7시	장석남 목사	김희순 권사

성 경 왕상 21:1-1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어리석은 욕심” 손달익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박수강·김복희2·신아령
설 교 손달익, 전재홍 목사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찬 양 찬 양 팀
설 교 조원영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당

웨스트민스터 홀